

민공 02년 (B.C.660년)

庚申年. 周惠王 17년; 齊桓26년; 晉獻17년; 衛懿9년; 蔡穆15년; 鄭文13년; 曹昭2년; 陳宣33년; 杞惠13년; 宋桓22년; 秦成4년; 楚成12년; 許穆38년

민공춘추_02_01	二年春王正月, 齊人遷陽.	2년 봄 왕력 정월. 제나라가 양나라 사람들을 이주 시키고 그 땅을 취했다.
------------	---------------	--

◎二年春王正月: 정월 초7일 무자일이 동지였다. 건자이며 윤월이 있다.

◎齊人遷陽: 『좌전』이 없다. 양陽은 국명으로 고동고의 『대사표』에 따르면, 희성姬姓이고, 홍량길의 『좌전고』에선 언성偃姓이라 하며, 『로사路史·국명기國名紀4』는 어성御姓이라고 한다. 『주금문존周金文存』 권2, 59항의 명문에 보면 “숙희가 양백의 제사를 위해 정을 만들었으니 영원하라(叔姬作陽伯旅鼎, 永用)”는 문구가 있는데 만약 여기서의 숙희가 양백의 여식이라고 한다면 양나라는 희성이라 할 수 있다. 양의 옛 성은 현재의 산둥성 기수현沂水縣의 서남쪽에 있다. 이 문구는 제나라가 양나라의 백성을 핍박하여 이주시키고 그 땅을 취한 것이다.

민공좌전_02_01	二年春, 虢公敗犬戎于渭汭. 舟之僑曰: “無德而祿, 殃也. 殃將至矣.” 遂奔躄.	2년 봄. 곽공이 위수渭水가 황하로 합류되는 지점에서(섬서성 화음현華陰縣의 동북쪽) 견융을 격퇴했다. 주지교舟之僑는 “덕이 없는데도 복을 받는 것은 재앙이다. 곽공에게 곧 재앙이 이를 것이다.”라고 말하며 결국 진प्나라로 도망쳤다.
------------	---	--

■二年春, 虢公敗犬戎于渭汭: 견융犬戎은 즉 은주 교체기의 귀방鬼方과 곤이昆夷를 가리킨다. 전국시대 이후로는 그들을 호胡나 흉노라고 부른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왕국유의 『귀방곤이험윤고鬼方昆夷獫狁考』를 참조하라. 위내渭汭는 위수가 황하로 합류되는 지점이다. 현재의 섬서성 화음현華陰縣의 동북쪽이다.

■舟之僑曰: 주지교는 곽의 대부이다.

■“無德而祿, 殃也. 殃將至矣.” 遂奔躄: 「진어2」 역시 주지교가 그 일족을 이끌고 진प्나라로 망명한 일을 서술하고 있지만 『좌전』과는 내용이 상이하다. 「진책秦策」은 “진प् 현공이 곽郭(즉 곽號: 저자)을 정벌하고자 했지만 주지교가 곽나라에 있음을 걱정하였다. 순식荀息이 말했다. ‘『주서周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충신의 혀를 자를 수 있다(美女破舌)’
는.” 이에 꾀나라에 여악사를 보내어 정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주지교가
꾀공에게 간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나라를 떠났다.” 고 기록하고 있어,
『좌전』의 내용과 역시 같지 않다. 아마 전국시대 종횡가의 설을 따른 것으로
서 역사적 사실로 믿긴 어렵다.

민공춘추_02_02	夏五月乙酉, 吉禘于 <u>莊公</u> .	여름, 5월 6일 을유일. 장공에게 길채吉禘를 지냈 다.
민공좌전_02_02	夏, 吉禘于 <u>莊公</u> , 速 也.	여름, 장공의 길채吉禘를 드렸는데 이것은 예에 규 정된 것보다 빠른 것이었다.

◎夏五月乙酉, 吉禘于莊公: 을유일은 6일이다.

■夏, 吉禘于莊公, 速也: 禘는 대제大祭로서 교제郊祭와 종왕終王 그리고 시
제時祭에 대해 모두 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 이것을 또 길채吉禘라고 부르
는 까닭은 고대에 삼년상은 25개월 만에 마치게 되고, 새로 사망한 자의 신주
를 종묘에 모시게 된다. 이때 대제를 올려 소목을 가려 정하는데, 담제禫祭가
곧 吉祭(禘)이다. 장공은 즉위 32년 8월에 사망했으므로 민공2년 8월에 길채를
드려야 하는데 5월에 지냈기 때문에 『좌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빨랐다”
고 쓴 것이다. 손인화孫人和의 『좌환만록체협신좌左宦漫錄禘禫申左』 (『문사』
제2집)를 참조하라. 『예기·왕제』의 『소』에서 인용한 정현의 『답조상』을
보면 “민공은 난리가 날 것을 마음으로부터 두려워했다. 그래서 스스로를 높
이는 일에 힘써 그 화를 막고자 하였다. 장공이 죽은 지 22개월밖에 안 되었는
데도 상을 벗고, 또 담제(길채)를 지내지도 않았다. 상복을 벗은 것은 예에 규
정된 것보다 6개월이 모자랐다.” 고 하여 다르다. 문공2년 희공에게 길채를 지
낼 때, 경문에서는 “대묘에 대사를 드렸다”고 쓴다. 즉 본문의 길채 역시 대묘
에서 거행했다.

민공춘추_02_03	秋八月辛丑, 公薨.	가을 8월 24일 신축일. 민공이 죽었다.
------------	------------	-------------------------

◎秋八月辛丑, 公薨: 신축일은 24일이다.

민공춘추_02_04	九月, 夫人 <u>姜氏</u> 孫于	9월. 부인 강씨가 주郝나라로 도망쳤다.
------------	---------------------	------------------------

	邾.	
--	----	--

◎九月, 夫人姜氏孫于邾: 손孫은 달아남遜의 뜻이고, 상세한 내용은 『춘추 · 장공원년』의 주석을 참조하라.

민공춘추_02_05	<u>公子慶父</u> 出奔莒.	공자 경보慶父가 거나라함로 도망쳤다.
민공좌전_02_03	<p>初, 公傳奪<u>卜齮</u>田, 公不禁. 秋八月辛丑, <u>共仲</u>使<u>卜齮</u>賊公于<u>武闈</u>. <u>成季</u>以<u>僖公</u>適邾. <u>共仲</u>奔莒. 乃入, 立之. 以賂求<u>共仲</u>于莒, 莒人歸之. 及密, 使<u>公子魚</u>請. 不許, 哭而往. <u>共仲</u>曰: “<u>奚斯</u>之聲也.” 乃縊.</p> <p><u>閔公</u>, <u>哀姜</u>之娣<u>叔姜</u>之子也, 故齊人立之. <u>共仲</u>通於<u>哀姜</u>, <u>哀姜</u>欲立之.</p> <p>公之死也, <u>哀姜</u>與知之, 故孫于邾. 齊人取而殺之於夷, 以其尸歸, <u>僖公</u>請而葬之.</p>	<p>애초에 민공의 스승이 복기卜齮의 토지를 빼았는데 민공은 이를 막지 않았다. 가을 8월 24일 신축일. 공중共仲이 복기를 시켜 노침의 결문인 무위武闈에서 민공을 시해했다. 성계成季는 희공을 모시고 주나라邾로 망명했다가 공중이 거나라로 도망친 후, 귀국하여 희공을 옹립했다. 그리고 거나라에 뇌물을 주고 공중을 넘겨주기를 요청했다. 거나라는 공중을 돌려보냈다. 밀密(산동성 비현費縣의 북쪽)에 당도했을 때 공중은 공자어魚를 보내어 사면을 요청했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공자어가 울면서 돌아오자, 공중은 “해사奚斯의 통곡소리로구나.” 탄식하며 목을 매어 죽었다.</p> <p>민공은 애강哀姜의 동생인 숙강叔姜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나라에서는 그를 군주로 세우고자 하였고, 공중은 애강과 간통한 사이여서 애강은 공중을 세우고자 했다.</p> <p>민공이 공중에 의해 시해되었을 때 애강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나라로 도망쳤다. 제나라는 그녀를 잡아 이夷(산동성 수광현壽光縣의 남쪽)에서 죽인 후 그 시신을 제나라로 가져가니 희공이 시신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여 장례를 치렀다.</p>

◎公子慶父出奔莒: 주석 없음.

■初, 公傳奪卜齮田: 기齮의 음은 기綺이다. 복기는 노나라 대부이다. 『예기 · 단궁상』의 “노나라 장공과 송나라가 승구乘丘에서 전쟁을 벌였다. 당시 현분보縣賁父가 전차를 몰았고, 복국卜國이 용우戎右였다.” 이를 통해 보면 노나

라에 복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公不禁. 秋八月辛丑: 신축일은 24일이다.

■共仲使卜齋賊公于武闈: 궁안의 문을 위闈라 한다. 무위武闈에 대해 손이양孫詒讓은 『주례·고공기·장인匠人』의 『정의』에서 노나라 무공武公의 종묘 옆에 있는 문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에 무공의 묘는 이미 허물었으므로 그의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 금악金鶚의 『구고록예설求古錄禮說』과 손인화孫人和의 『좌환만록左宦漫錄』은 모두 본문의 “武”는 “호虎”로 읽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주례·지관·사씨師氏』와 『좌전·소공11년』에 모두 “호문虎門”이 나오는데 이 호문은 노침路寢에 달린 문이다. 즉 위문闈門은 노침의 곁문旁門이다.

■成季以僖公適邾: 『사기』에선 희공을 민공의 동생이라 하고, 두예는 민공의 서형庶兄으로 성풍成風의 아들이라고 한다.

■共仲奔莒. 乃入, 立之: 공중이 거나라로 망명한 후 성계가 다시 입국하여 희공을 세웠다.

■以賂求共仲于莒, 莒人歸之. 及密: 두예의 주석에 따르면 밀密은 노나라 땅이다. 현재의 비현費縣의 북쪽이다. 『수경주·기수沂水』에선 거나라 땅이라고 하고, 양수경楊守敬의 『수경주소』역시 이 주장을 따르고 있지만 신뢰할 수는 없다. 혹자는 은공2년의 기사에 나오는 밀이라고 주장하나 그 기사의 밀이 은공2년의 밀처럼 현재의 창읍현昌邑縣 부근인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그곳은 곡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뒤의 “해사奚斯가 울면서 돌아왔다”라는 문구의 정황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使公子魚請. 不許, 哭而往: 경보가 공자어를 시켜 죄를 사면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허락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공자어가 울면서 돌아왔다.

■共仲曰: “奚斯之聲也.”: 해사奚斯는 공자어의 자이다. 『시·노송·비궁』의 “새로운 묘가 크고도 크니, 이는 해사가 지은 것이다(新廟奕奕, 奚斯所作)”이란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 해사와 동일인이다.

■乃縊: 공중의 장례 절차는 그의 죄로 인해 강등되었다. 『좌전·문공15년』의 주석을 함께 참조.

■閔公, 哀姜之娣叔姜之子也, 故齊人立之. 共仲通於哀姜, 哀姜欲立之. 閔公之死也, 哀姜與知之, 故孫于邾. 齊人取而殺之于夷: 이夷는 『좌전·은공원년』의 “기나라가 이를 정벌했다(紀人伐夷)”에서의 “夷(산동성 수광현壽光縣의 남쪽에 그 옛 성이 있다: 저자)”로 생각된다. 두예는 노나라 땅이라고 설명했지만 옳지 않다. 상세한 설명은 왕부지의 『패소稗疏』를 참조하라. 『열녀전·열폐전』은 “제 환공이 희공을 세우고자 하였는데, 애강과 경보가 사통하여 노나라를 위협에 빠뜨린 것을 알고서 애강을 불러 독주를 마시게 하여 살해했

다.” 고 쓰고 있다.

▣以其尸歸，僖公請而葬之：「노세가」는 『좌전』에 기록된 정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귀는 노나라로 돌려 보냄이다. 애강은 죄인이기 때문에 회공이 제 환공에게 청하여 그녀의 장례를 치렀다.

민공좌전_02_04	<p>成季之將生也，桓公使卜楚丘之父卜之，曰：“男也，其名曰友，在公之右，間于兩社，為公室輔。季氏亡則疊不昌。”又筮之，遇“大有”之“乾”。曰：“同復于父，敬如君所。”及生，有文在其手曰“友”，遂以命之。</p>	<p>성계를 낳을 적에 환공이 복초구卜楚丘의 아버지에게 점을 치게 했다. 그는 “사내입니다. ‘우友’라고 이름지으십시오. 군주의 측근으로, 또 대신으로서 공실을 보좌할 것입니다. 계씨가 망하면 노나라 역시 쇠퇴할 것입니다.”라고 아뢰었다. 다시 시초점을 치니 대유괘大有卦가 건괘乾卦로 변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 아이는 존귀함이 아버지와 같아져서 군주처럼 존경 받을 것입니다.”라고 점괘를 풀이했다. 성계가 태어났는데 그의 손바닥에 “우友”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로써 이름을 삼았다.</p>
------------	--	---

▣成季之將生也，桓公使卜楚丘之父卜之：복초구의 아버지는 그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빌린 것이다. 복초구는 『좌전·문공18년』과 『좌전·소공5년』에 보인다. 『좌전·소공3년』에 “옛날 성계우는 환공의 막내아들이었는데 문강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뱃속에 있을 때 점을 쳤었다.”는 기사가 있다.

▣曰：“男也，其名曰友，在公之右：재우在右는 등용됨(用事)의 뜻이다. 우友와 우右가 운을 이룬다. 두 글자는 고음에서 똑같이 해부哈部에 속한다.

▣間于兩社：노나라에는 두 개의 사社가 있다. 하나는 주사周社이고 다른 하나는 박사亳社이다. 천자와 제후는 모두 삼조를 두는데, 외조外朝·치조治朝·연조燕朝이다. 또 제후의 궁엔 삼문이 있는데, 고문庫門은 외문外門이고, 치문雉門은 중문中門이며 노문路門은 침문寢門이다. 외조는 고문의 안에 자리하여 송사와 비밀상적인 업무를 결정하는 곳으로서 군주가 늘 참여하진 않는다; 치조는 치문의 안쪽에 위치하여 간혹 정조라고도 부르는데 군신이 매일 상견하는 곳이다. 고대에 시조視朝하는 의례를 보면, 신하들이 군주에 앞서 들어서 있고, 군주는 그 후에 노문을 나서 뜰에 자리를 잡고서 여러 신하들에게 두루 읊을 함으로써 조례를 마친다. 그리고 노침으로 물러나서 정사에 대해 의견을 듣고 여러 신하들은 관부의 업무를 처리하는 곳에서 업무를 한다. 왕의 조정엔 9개의 실室이 있고, 제후들의 조정 좌우에도 역시 당연히 실室이 있다. 연조는 내

조라고도 하는데 극정을 논의하면서 군주의 명이 있으면 신하들은 모두 내조에서 의견을 개진한다. 치문의 바깥 오른쪽에는 주사가 있고, 왼쪽에는 박사가 있다. 그리고 이 두 사의 사이에는 외조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기실 치조와 내조를 통틀어서 말한다. 치조에서는 비단 군신이 매일 서로 상견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여러 신하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기도 하다. 『설원 · 지공편조公篇』에 “계손행보季孫行父가 아들을 후계하면서 말하기를, ‘내 양사의 사이에 조정의 대신이 되어, 내 후손이 군주를 잘 섬기지 못한다면 그를 신속히 처리하라(吾欲室之俠(夾)於兩社之間也, 使吾後世有不能事上者, 使其替之益速)³.’” 라는 말이 있다. 즉 양사의 사이는 조정이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집정대신이 업무를 보는 곳이기도 하다. 양사에 있다는 말은 노나라의 대신이라는 뜻.

▣為公室輔: 앞 두 구절의사와 보는 운을 이룬다. 고음에서 두 글자는 어모부 魚模部에 속한다.

▣季氏亡則魯不昌.” :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예로부터 두 가지가 있었다. 『사기 · 노세가』는 “계우가 망명하면 노나라는 번성하지 못할 것(季友亡, 則魯不昌)”으로 쓴다. 즉 계씨란 실제로 계우 한 사람을 가리키고, 망난이란 그가 망명함으로 해석된다. 복건이 “계우가 망명하고 노나라의 두 군주(즉 자반과 민공을 말함: 저자)가 시해당한 것을 말한다.”고 해석한 예다. 또 하나의 해석은 계씨란 계우의 자손들을 가리키고, 계씨 집안과 노나라가 그 흥망을 함께 할 것이라는 뜻으로 본 것이다. 비費는 계씨의 사읍으로 『맹자』에 비혜공費惠公이 보이고, 『여씨춘추 · 신세편慎勢篇』의 “등과 비 같은 작은 나라가 수고하면 추나라와 노나라가 편안해진다(以滕 · 費則勞, 以鄒 · 魯則逸)⁴”, 「초세가」의 “추 · 비 · 담 · 비 등은 작은 새와 같다(騶 · 費 · 邾 · 邾者, 羅鷺也)”는 기사를 보면 충분히 비나라費國가 경양왕頃襄王 시대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나라와 마찬가지로 초나라에게 멸망당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심흠한의 『보주』를 참조하라. 망난과 창昌은 운을 이룬다. 고음에서 두 글자는 모두 양당부陽唐部에 속한다.

▣又筮之: 『주례 · 춘관 · 서인筮人』에선 “무릇 나라의 대사에는 먼저 시초점(筮)을 치고, 그 후에 거북 점(卜)을 친다.”고 말한다. 『좌전』으로 고증해보면 이와는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성계를 임신했을 때 먼저 거북 점을 치고 뒤에 시초점을 쳤다. 그 후 희공4년의 기사를 보면, 진 헌공이 거북점을 쳐서 여희를 부인으로 삼았고, 희공25년엔 진 문공이 양왕에 대해 거북점을 쳤으며, 해공9년 조앙이 정나라를 구원하는데 그 여부를 물어보는데 있어서 거북점을 쳤는데, 이 모두 거북점을 먼저하고 시초가 그 뒤였다. 유독 애공17년 위후가



대유괘

³ 설원의 내용 확인

⁴ 확인

먼저 시초점을 치고 뒤에 거북점을 치고 있다. 대체로 고대에 점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북卜은 거북을 서筮에는 시초를 사용하는데, 거북은 장長, 서는 단短을 말하고, 동물을 식물보다 더 영험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卜을 앞에 두는 것이다.

■遇“大有”：대유괘大有卦는 건괘乾卦가 아래에 있고, 리괘離卦가 위에 있다.

■之“乾”：건괘는 위 아래가 모두 건괘로 구성되어 있다.

■曰：“同復于父，敬如君所。”：이 말은 시초점을 친 사람의 말이지 패나 효의 사가 아니다. 同復于父는 그의 존귀함이 부친과 같아진다는 뜻이다. 敬如君所는 온 나라 사람이 그를 공경하여 마치 군주의 지위와 같다는 것으로서 그의 존귀함이 군주와 같다는 의미이다. 공영달의 『소』를 참조하라. 고흥高亨의 『좌전국어적주역설통해左傳國語的周易說通解』는 “대유괘는 위에 리괘가, 아래에 건괘가 있다. 건괘는 위 아래가 모두 건괘이다. 건은 아버지, 리는 아들을 가리킨다. 대유괘의 위의 리괘가 변하여 건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들이 그 아버지와 같은 덕을 가짐을 상징한다. ‘부친의 가르침을 고치지 않는다(無改於父之道)’로 ‘同復于父’를 설명할 수 있다. (복復은 옛 도故道를 실천하다는 뜻이다: 저자) 건괘는 또 임금을, 리괘는 신하를 상징한다. 대유괘의 위의 리괘가 변하여 건괘가 되었으므로 또한 신하가 그 군주와 동심임을 상징한다. 항상 군주의 곁에 머물기 때문에 ‘敬如君所’이라고 풀이한 것이다. (여如是 往의 뜻; 소所는 處의 뜻이다: 저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及生，有文在其手曰“友”，遂以命之：「노세가」는 『좌전』의 뜻을 채용하고 있다.

민공춘추_02_06

冬, 齊高子來盟.

겨울 제나라의 고해高偁가 와서 맹약을 맺었다.

◎冬, 齊高子來盟: 『좌전』이 없다. 두예는 “고자는 고해高偁이다.”라고 설명한다. 「제어」는 “환공이 제후들의 일을 크게 근심하였다. 노나라는 부인과 경보의 난으로 인해 두 명의 군주가 죽었고, 나라에 후사가 없었으므로 환공이 이를 전해 듣고서 고자를 시켜 살펴보도록 하였다(桓公大下諸侯, 魯有夫人·慶父之亂, 二君殺死, 國無嗣. 桓公聞之, 使高子存之).”고 전한다. 『관자·소광편小匡篇』의 내용 역시 같다. 『예기·곡례하曲禮下』의 “열국의 대부가 천자의 나라에 가면 ‘모사某士’라고 하고, 스스로는 ‘배신陪臣 아무개某’라고 칭한다. 타국의 대부에 대해서는 자자라 칭한다.”에 대해 정현은 “子是 덕이 있는 사람을 칭한다. 『노춘추』에서 ‘齊高子來盟’이라고 한 것이 그 예다.”라고 설명한다.

민공춘추_02_07	十有二月， <u>狄</u> 入 <u>衛</u> 。	12월. 적狄인이 위나라衛에 침입했다.
민공좌전_02_05	<p>冬十二月，<u>狄</u>人伐<u>衛</u>。<u>衛</u>懿公好鶴，鶴有乘軒者。將戰，國人受甲者皆曰：“使鶴！鶴實有祿位，余焉能戰？”公與<u>石祁子</u>玦，與<u>甯莊子</u>矢，使守，曰：“以此贊國，擇利而為之。”與夫人繡衣，曰：“聽於二子！”<u>渠孔</u>御戎，<u>子伯</u>為右；<u>黃夷</u>前驅，<u>孔嬰</u>齊殿。及<u>狄</u>人戰于<u>熒澤</u>，<u>衛</u>師敗績，遂滅<u>衛</u>。<u>衛</u>侯不去其旗，是以甚敗。<u>狄</u>人囚<u>史華龍</u>滑與<u>禮孔</u>，以逐<u>衛</u>人。二人曰：“我，大史也，實掌其祭。不先，國不可得也。”乃先之。至，則告守曰：“不可待也。”夜與國人出。<u>狄</u>人入<u>衛</u>，遂從之，又敗諸<u>河</u>。</p> <p>初，<u>惠</u>公之即位也少，<u>齊</u>人使<u>昭伯</u>烝於<u>宣姜</u>，不可，強之。生<u>齊子</u>·<u>戴公</u>·<u>文公</u>·<u>宋桓夫人</u>·<u>許穆夫人</u>。<u>文公</u>為<u>衛</u>之多患也，先適</p>	<p>겨울 12월. 적狄인이 위나라를 정벌했다. 위 의공懿公은 학을 좋아했는데, 어떤 학은 대부의 지위를 받아 수레를 타는 놈도 있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국민들은 갑옷을 지급받으며 한결같이 “학에게 시켜라! 학은 실제로 벼슬을 받지 않았는가! 아무 지위도 없는 내가 왜 전쟁에 나서야 하는가?” 라고 반발했다. 의공은 석기자石祁子에게 활각지를, 영장자甯莊子에게 화살을 신표로 내려주며 도성을 지킬 것을 명하고 “이 징표를 가지고 나라를 지킬 것이며 실리를 택해 실행하라.” 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부인에게 수 놓은 옷을 주며 “두 사람의 뜻을 따르라!” 고 당부했다. 거공渠孔이 전차를 몰고, 자백子伯이 응우가 되었다. 황이黃夷는 선봉을, 공영제孔嬰는 후위를 맡았다. 형택熒澤(소재 미상, 황하의 북쪽 추정. 호위의 설)에서 적인에 맞서 싸웠지만 대패했고 드디어 위나라가 멸망했다. 위후가 군주를 상징하는 깃발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크게 전투에 패했다. 적인이 화룡활華龍滑과 예공禮孔을 사로잡아 위나라 군사를 추격하였다. 두 사람이 “우리는 위나라의 대사大史로서 나라의 제사를 담당한다. 우리를 앞세우지 않는다면 나라를 얻을 수 없다.” 고 말하므로 그들을 앞세워 나아갔고, 그들은 도성을 지키던 두 사람에게 “적인을 상대로 방어할 수 없다.” 고 일러 주었다. 밤에 두 사람은 국민들과 함께 탈출하였고 적인은 위나라 도성으로 들어와 그들을 쫓아가서 황하에서 다시 격퇴하였다.</p> <p>애초에 혜공惠公이 즉위할 때 나이가 어렸었다. 그래서 제나라는 소백昭伯을 시켜 선강宣姜과 간통할 것을 요구했지만 소백이 거절했다. 하지만 강제로 간통시켜서 제자齊子·대공戴公·문공文公·송 환공의 부인宋桓夫人·허 목공의 부인許穆夫人을 낳게 하였다. 문공은 위나라에 우환이 많아 일찍이 제나라에</p>

齊. 及敗, 宋桓公逆諸河, 宵濟. 衛之遺民男女七百有三十人, 益之以共. 滕之民為五千人. 立戴公以廬于曹. 許穆夫人賦「載馳」. 齊侯使公子無虧帥車三百乘. 甲士三千人以戍曹. 歸公乘馬, 祭服五稱, 牛·羊·豕·雞·狗皆三百與門材, 歸夫人魚軒, 重錦三十兩.

가 있었다. 위나라가 전쟁에 패할 적에 송 환공은 황하에 나아가 위나라의 백성들을 기다렸는데, 유민들은 밤에 황하를 건넜다. 위나라의 유민 남녀 730명에 공공(하남성 휘현輝縣)과 등滕(위나라의 읍으로서 위치는 미상)의 백성 5천여 명이었다. 대공戴公을 군주로 세우고 조읍曹(하남성 활현滑縣 서남쪽의 백마白馬 고성)에 거주하였다. 허목부인은 「재지載馳」라는 시를 지어 부르며 슬퍼했다. 제 환공은 공자 무휴無虧에게 전차 3백승과 갑사 3천 명을 인솔하여 가서 조읍을 수비하도록 하고, 대공에게 말과 예복 다섯 벌, 소·양·돼지·닭·개 등 3백여 마리 그리고 토목에 쓰일 재목을 보내왔다. 부인에게는 물고기 가죽으로 장식한 수레와 질 좋은 비단 30필을 보내왔다.

○十有二月, 狄入衛: 두예의 『후서後序』에선 『기년紀年』을 인용하여, “위나라 의공懿公과 적적赤狄이 동택洞澤(형洞으로 써야 옳다: 저자)에서 전쟁을 벌였다.” 즉 본문의 적狄은 적적이다.

■冬十二月, 狄人伐衛. 衛懿公好鶴, 鶴有乘軒者: 헌軒은 곡선의 끝채曲輶와 (음은 주俯 혹은 원輶이다: 저자) 덮개가 있는 수레이다. 대부 이상의 신분을 가진 자가 탄다. 학이 이런 수레를 탔다는 것에 대해 왕중汪中은 『술학述學·석삼구증釋三九中』에서 “경의 대우를 받으며 총애를 받고, 경의 늑으로 음식을 내렸다”고 쓰고 있는데 그의 말이 신뢰할 만하다. 『가자춘추』는 “위나라 의공은 학을 좋아하여 수로 무늬를 놓은 장식을 달고 수레를 탔다”고 전한다. 즉 학이 수레를 탄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보고 있는데 이는 신뢰하기 어렵다. 청대 왕단리王端履의 『증론문재필록重論文齋筆錄』에서 본문의 학이란 학음의 사람으로서 위나라 의공의 총애받는 남자(外嬖)라고 주장했지만 『좌전』은 이와 걸맞는 사법詞法을 사용하지 않아서 믿기 어렵다.

■將戰, 國人受甲者皆曰: “使鶴! 鶴實有祿位, 余焉能戰?” : “국인”과 “서민”은 같지 않다. 혹자는 “국인”이란 당시의 성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즉 자유민이라고 봤고, 혹자는 성시와 사방 근교四郊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모두 “국인”이라고 봤는데 후자가 비교적 신뢰할만하다. “수갑受甲”은 『좌전·은공11년』의 “무기를 반출함授兵(수병)”의 주석을 참조하라. 『여씨춘추·충렴편忠廉篇』에서 “적인翟人이 위나라를 공격하자. 위나라 백성들이 말한다. ‘군주가 위록을 준 것은 학이다. 부귀한 사람들은 궁인이다. 군주

는 공인과 학을 시켜 전쟁을 해라! 우리가 왜 전쟁을 해야 하는가!’ 라고 말하며 드디어 무기를 버리고 떠났다고 한다.” 『한시·외전7』과 『신서·의용편 義勇篇』, 『논형·유증편 儒增篇』에 모두 이 일을 기재하고 있다. 『여씨춘추』와 『신서』등에선 홍연 弘演의 일까지가 기록하고 있지만 『좌전』엔 그에 대한 사적은 없다. 『논형·유증편』에선 위 의공을 위 애공으로 적고 있는데, 양옥승 梁玉繩의 『별기 警記』는 의공을 애공의 호라고 했는데 그가 적인에게 살해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公與石祁子 玦: 석기자 石祁子는 『좌전·장공12년』의 주석을 참조.

■與甯莊子 矢: 영장자 甯莊子는 『진어4』의 위소의 주석과 두예의 『세족보』에 근거하면 영계 甯跪의 손자이며 영목증정 甯穆仲靜의 아들이며 이름은 속 速이다.

■使守, 曰: “以此贊國: 찬 贊은 돕다 助의 뜻이다.

■擇利而為之.” 與夫人 繡衣, 曰: “聽於二子!” : 이자 二子는 석기자와 영장자이다.

■渠孔 御戎, 子伯 為右; 黃夷 前驅, 孔嬰 齊殿: 공영제 孔嬰齊는 공달 孔達의 부친이다. 공달은 『좌전·문공원년』에 보인다.

■及狄人 戰于 熒澤: 본문의 형택 熒澤은 당연히 황하의 북쪽에 있어야 한다. 심흠한의 『지명보주』에선 “역대로 여러 서적을 살펴보면 형탕이 황하의 북쪽에 있다는 말을 찾아볼 수 없다. 위나라 의공이 군사를 이끌고 적 狄의 군사를 맞아 싸우다가 맞바람을 안고 도망치다가 황하의 남쪽에까지 이르렀다. 적인은 도망치는 위나라 군사를 형택까지 추격하여 위나라 군사를 전멸시켰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좌전』의 문맥을 보면 심흠한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호위 胡渭는 『우공추지 禹貢錐指8』에서 “위나라와 적인이 전투를 벌인 곳은 흑황하의 북쪽에 별도로 있던 형택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위헌자 魏獻子の 땅/채음이 대륙 大陸에 있었는데(정공원년: 저자), 이 대륙은 『우공』에서 말하는 대륙이 아닌 것과 같다. 형택 역시 그 소재지를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호위의 주장이 비교적 옳아 보인다.

■衛師 敗績, 遂滅 衛: 여기 멸 滅자는 글자 그대로 멸망의 뜻이다. 다음에 나오는 『좌전』의 “위나라가 멸망했다는 사실조차 잊고(衛國忘亡)”라는 말이 그 증거이다. 『춘추』에서 멸이라 쓰지 않고 입이라고 쓴 까닭은 멸망했지만 다시 나라를 보존시켰기 때문이다.

■衛侯 不去 其旗: 호위와 혜동의 『보주』에선 “不去其旗”를 깃발을 숨기지(藏) 않았다고 풀이한다. 기실 “去”를 글자 그대로의 뜻으로 본 것인데 역시

통한다⁵.

■是以甚敗: 『여씨춘추·충렬편』은 “적인翟人이 의공이 도망친 형택에까지 쫓아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육신을 먹었는데 유독 그의 간만은 버렸다.” 고 적고 있다.

■狄人囚史華龍滑與禮孔, 以逐衛人. 二人曰: 두 사람이란 화룡활華龍滑과 예공禮孔을 가리킨다.

■“我, 大史也, 實掌其祭. 不先, 國不可得也.”: 옛 사람들은 제사와 제기를 매우 중시하였기 때문에 태사가 이런 말로 적인을 속인 것이다.

■乃先之. 至, 則告守曰: “不可待也.”: 『노어하』와 『초어하』의 위소의 주석을 보면 “대待는 방어하다禦(어)와 같다” 고 풀이한다. “不可待”는 적인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다는 뜻이다.

■夜與國人出. 狄入衛, 遂從之: 적인이 도망친 위나라 사람들을 추격했다.

■又敗諸河: 위나라와 적의 전투는 시종일관 황하의 북쪽에서 이루어졌다.

■初, 惠公之即位也少: 위나라 선공은 은공4년에 즉위하여 환공12년에 죽었으므로 총 재위기간은 20년이다. 즉위한 후 태자인 급자急子の 처가 될 여인을 부인으로 삼아 수壽와 삭朔을 낳았는데 삭이 곧 혜공이다. 혜공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즉위할 당시 불과 15~6세 정도였다.

■齊人使昭伯烝於宣姜: 제인은 아마 제나라 희공을 가리키는 듯하다. 희공은 춘추시대가 열리기 8년 전에 즉위했고, 선강(선공의 부인으로 혜공의 모친: 저자)은 희공의 여식이다. 위나라 혜공은 노나라 환공13년에 즉위했고, 환공16년 11월에 제나라로 망명했다. 그리고 제 희공은 환공14년 12월에 사망했으므로 이를 잘 추산하면 대체로 해당하는 년월을 알 수 있다. 소백昭伯은 『사기』에 근거하면 위 선공의 아들이며 급자急子の 동생 공자완公子頑이다. 복건은 소백을 급자의 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근거를 알 수 없다. 『시·패풍擲風·장유자牆有茨·서序』에 “「장유자」는 위나라 사람들이 군주를 풍자한 노래이다. 공자 완이 군주의 모친과 간통하니 죽인들이 그를 미워하고 따르지 않았다(國人疾之而不可道).” 고 설명한다. 또 「순지분분鶉之奔奔」의 「序」는 “「鶉之奔奔」은 위나라 선강을 풍자한 시이다. 위나라 사람들은 선강을 메추라기나 까치鶉鶉만도 못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고 쓰고 있다.

■不可, 強之. 生齊子·戴公·文公·宋桓夫人·許穆夫人: 제자齊子에 대해 『회전』은 “제자는 제나라로 출가한 여인이다. 희공17년 ‘제나라 희후는 총애하는 여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위희衛姬가 으뜸이었다. 그 사이에서 무맹武孟을 낳았다’ 는 기록이 있는데 본문의 제자가 곧 위희이다.” 라고 설명한다.

⁵ 임요수: “군사들의 이목은 군주의 깃발에 집중한다. 위나라 의공이 전투에 패배한 후에도 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심하게 패하여 군신이 모두 죽는데 이른 것이다.”

송나라 환공의 부인은 곧 송 양공의 모친이다. 혜공의 즉위로부터 40년이다.

■文公為衛之多患也: 「위세가」는 “의공懿공이 즉위한 후 학을 좋아하고 음악과 사치에 빠져 지냈다”, 또 “의공이 즉위했지만 백성들과 대신들이 모두 복종하지 않았다.” 고 기록한다.

■先適齊. 及敗, 宋桓公逆諸河: 위 의공이 전쟁에 패하여 죽은 후 송 환공이 위나라의 패잔병들을 황하에서 맞이한 것. 후자는 문공을 영접함이라고 한다. 하지만 문공은 이미 제나라에 도착했고 제나라를 경유하여 송나라에 왔으므로 황하를 건너지 않는다. 이로써 그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알 수 있다.

■宵濟: 적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밤에 강을 건너다.

■衛之遺民男女七百有三十人: 대체로 이 숫자는 송 환공이 받아들인 사람들의 수이다.

■益之以共·滕之民為五千人: 공공은 위나라의 읍으로 현재 하남성 휘현輝縣이다. 서주시대의 공백화共伯和는 위나라 무공武公으로 추정된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고힐강의 『사림잡식史林雜識·공화편共和篇』을 참조하라. 등滕 역시 위나라의 읍이지만 소재지는 알 수 없다.

■立戴公以廬于曹: 조曹는 위나라의 읍이다. 현재의 하남성 활현滑縣 서남쪽의 백마白馬 옛성에 해당한다. 려廬는 려旅와 같다. 기거하다(寄止)의 뜻이다.

『시』와 『좌전』의 모형과 정현, 복건과 두예 그리고 공영달의 『정의』에 근거하면, 대공은 실제로 민공2년 12월에 즉위했고, 즉위하자마자 죽었으며 문공이 그 뒤를 이어 해를 넘겨 개원하니 이 때는 노 희공 원년에 해당한다.

「위세가」는 “의공의 부친 혜공 희삭이 태자 희급을 참살하고 즉위한 이래로 의공에 이르기까지 기회만 있으면 그들을 없으려고 했는데, 마침내 혜공의 후대를 멸하고 검모의 아우 소백의 아들 희신을 나라의 군주로 옹립하였으니 그가 바로 대공이다” 또 “전에 적족이 의공을 죽였을 때 위나라 사람들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전에 선공이 죽인 태자 급의 후손을 세우고 싶었지만 그의 아들은 이미 죽고 없었으며 태자 급을 대신해서 죽은 수 또한 아들이 없었다. 태자 급의 동모제는 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검모이다. 그는 일찍이 제나라로 달아난 혜공을 대신해서 8년간 재위하다가 물러났다. 둘째 동생은 소백이다. 소백과 검모는 이미 죽고 없었으므로 소백의 아들 신을 세웠으니 그가 대공이다. 대공이 죽고 그의 아우 휘를 세웠으니 그가 문공이다.”라고 전한다. 『좌전』과 『사기』에 따르면, 대공은 소백의 아들임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서·고금인표』에서는 대공을 검모의 아들이라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許穆夫人賦 「載馳」: 「載馳」는 『시·패풍』에 수록되어 있다.

■齊侯使公子無虧帥車三百乘·甲士三千人以戍曹: 무휴無虧는 곧 공자 무맹武孟

이고 그의 모친이 위희衛姬이다.

▣歸公乘馬, 祭服五稱, 牛·羊·豕·雞·狗皆三百與門材: 귀歸는 음식을 보냄饋으로 읽는다. 두예는 “네 마리의 말을 승이라 한다.” 고 설명한다. 장병린의 『좌전독』은 “본문의 승마乘馬란 널리 탈 수 있는 말을 가리키지 네 마리의 말을 승이라 한다는 뜻을 의미하지 않는다. 『관자·소광』의 ‘적인이 위나라를 공격하자 위나라 사람들이 조읍에 거주하게 되었고, 제나라 환공은 초구에 성을 쌓아서 그곳에서 군주가 되도록 하여 여기저기 흩어진 백성들을 양육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제 환공이 말 3백필을 주었다.’ 는 기사를 보면 네 필에 그치지 않았다. 소나 양 등이 3백이었으니 말 역시 삼백 필이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장병린의 설명이 옳다. 『좌전·소공6년』의 “以其乘馬八匹私面”과 『좌전·소공20년』의 “衛侯以爲乘馬”, 그리고 『좌전·소공29년』의 “衛侯來獻其乘馬”를 보면 승마란 모두 전차/수레를 끄는 말을 가리킨다. 『좌전』으로써 『좌전』을 증명해보면 두예의 설명은 옳지 않다. 문재門材는 문호를 만드는 재료이다.

▣歸夫人魚軒: 어헌魚軒은 정공9년에 보이는 서헌犀軒과 유사하다. 서헌은 무소의 가죽으로 장식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헌은 물고기의 가죽으로 장식한 것. 『시·소아·채미采薇』의 “象弭魚服”에 대해 공영달은 『소』에서 육기陸璣의 『소』를 인용하여 “어복魚服은 어수魚獸(돌고래와 유사한 해양 포유동물)의 가죽이다. 어수는 돼지를 닮았는데 동해에 있으며 그 뱃가죽 위에는 얼룩무늬가 있고, 배 아래는 청색이다.” 장병린의 『좌전독』은 『사기·예서』에 보면 교헌鮫鞣이 있는데 이것은 교어 즉 상어의 가죽으로 말의 배를 묶는 끈을 만든다. 아마 어헌 역시 이로 인해 그런 이름을 얻었을 것이다.

▣重錦三十兩: 금錦이란 각종의 색깔의 사絲로 직조한 매우 품질이 좋은 비단이다. 중금은 잘 정련한(熟細) 비단이다. 30량은 30필이다. 고대의 배와 비단은 한 필이 4장丈이고 두 단으로 나누어 양쪽에서 합권하기 때문에 양兩이라고 부른다. 만약 필이 짝수라면 역시 필이라고 부른다.

민공춘추_02_08	鄭棄其師.	정나라가 군대를 버렸다.
민공좌전_02_06	鄭人惡高克, 使帥師次于河上, 久而弗召, 師潰而歸, 高克奔陳. 鄭人為之賦「清人」.	정 문공이 고극高克을 미워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황하가에 주둔시키고선 오래도록 그를 불러들이지 않으므로 군사들은 모두 흩어지고 고극 역시 진陳나라로 도망쳤다. 정나라 사람들은 그를 위해 「청인清人」이란 시를 지어 불렀다.

◎鄭棄其師: 『당서 · 유황劉貺』에서 『기년』을 인용하여 역시 “鄭棄其師”라고 쓰고 있다.

■鄭人惡高克, 使帥師次于河上: 『시 · 邶風 · 청인淸人』의 『소』는 “적狄이 위나라를 침략했을 때, 위나라는 황하의 북쪽에 위치하고, 정나라는 하남에 자리잡고 있었다. 적인이 황하를 건너 정나라를 칠까 두려워 고극高克을 시켜 황하의 윗쪽에 군사를 이끌고 가서 방어하도록 했다.”고 설명한다.

■久而弗召, 師潰而歸, 高克奔陳. 鄭人為之賦「淸人」: 「청인淸人」은 현재 『시 · 정풍鄭風』에 있다. 청은 정나라의 읍 이름이다. 시의 내용을 볼 때 고극과 그가 인솔한 군사들은 모두 청읍의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 청읍은 현재 하남성 증모현中牟縣 부근이다. 「淸人」의 「서」의 “문공을 풍자한 것”이라는 말에 따르면 본문의 정인鄭人은 정 문공과 공자 색索이다.

<p>민공좌전_02_07</p>	<p>晉侯使大子申生伐東山皋落氏. 里克諫曰: “大子奉冢祀·社稷之粢盛, 以朝夕視君膳者也, 故曰冢子. 君行則守, 有守則從. 從曰撫軍, 守曰監國, 古之制也. 夫帥師, 專行謀, 誓軍旅, 君與國政之所圖也. 非大子之事也. 師在制命而已, 稟命則不威, 專命則不孝, 故君之嗣適不可以帥師. 君失其官, 帥師不威, 將焉用之? 且臣聞皋落氏將戰. 君其舍之!” 公曰: “寡人有子, 未知其誰立焉!” 不對而退.</p>	<p>진 헌공이 태자 신생申生에게 동산東山 고락씨皋落(산서성 원곡현垣曲縣 동남쪽에 고락진皋落鎮이 있다. 이곳이 옛 고락씨의 영토)를 정벌하게 하였다. 이극里克이 이를 반대하며 간언했다. “태자는 종묘와 사직의 제사를 받들고, 아침 저녁으로 군주의 식사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자冢子’라고 합니다. 군주가 밖으로 행차를 하면 도성을 지키고, 지킬 사람이 따로 있다면 군주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따라 나서는 것을 일러 ‘무군撫軍’이라 하고, 도성을 지키는 것을 ‘감국監國’이라 하는 것이 옛 제도입니다. 무릇 군사를 인솔할 때 계획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고 군사에게 맹서를 받는 것은 군주와 정경이 해야 할 일이지 태자의 업무가 아닙니다. 군사의 성패는 제명制命, 즉 군사들에게 내리는 명령에 있을 따름인데, 태자가 일마다 군주의 명을 받는다면 위엄이 없고, 전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불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의 적자는 군사를 이끌 수 없는 법입니다. 군주가 군사를 인솔하는데 태자를 쓰신다면 관리를 부리는데 신임을 잃고, 태자는 군사를 이끄는 데 있어 위엄을 잃게 되니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또한 신이 듣건대 고락씨가 장차 전쟁을</p>
-------------------	---	--

見大子。 大子曰：“吾其廢乎？” 對曰：“告之以臨民，教之以軍旅，不共是懼，何故廢乎？且子懼不孝，無懼弗得立。脩己而不責人，則免於難。”

大子帥師，公衣之偏衣，佩之金玦。狐突御戎，先友為右。梁餘子養餗罕夷，先丹木為右。羊舌大夫為尉。先友曰：“衣身之偏，握兵之要，在此行也，子其勉之！偏躬無慝，兵要遠災，親以無災，又何患焉？” 狐突歎曰：“時，事之徵也；衣，身之章也；佩，衷之旗也。故敬其事，則命以始；服其身，則衣之純；用其衷，則佩之度。今命以時卒，闕其事也；衣之尫服，遠其躬也；佩以金玦，棄其衷也。服以遠之，時以闕之；尫，涼；冬，殺；金，寒；玦，離；胡可恃也？”

일으키려 한다는데 군주께서는 태자를 보내지 마십시오.” 현공은 “과인에겐 여럿 아들이 있고 아직 누구를 세울지 알 수 없다!” 고 답하였다. 이극은 이에 아무 대답없이 물러났다.

이극이 태자를 뵈니 태자가 물었다. “내가 버려지는 것인가?” 이에 “군주께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로 태자에게 말했고, 군대를 인솔하는 방법을 알려 주셨으니 태자는 이 일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지를 근심해야지 왜 폐출될 것을 걱정하십니까? 또 스스로 불효할까 걱정해야지 자리를 얻지 못할까를 근심할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 정진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는다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태자가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려 하니, 현공은 그에게 옷 색깔이 반반으로 된 편의偏衣를 입혀주고, 손가락에 금결金玦을 채워주었다. 호돌狐突이 어음이 되고, 선우先友가 응우가 되었으며 양여자양梁餘子養이 한이罕夷의 전차를 몰고 선주목先丹木이 거우가 되고 양설대부羊舌大夫가 위尉가 되었다. 선우가 말했다. “옷의 절반이 자신의 복색과 같은 옷을 입히고, 금결로 병권에 대한 전권을 주셨습니다. 태자의 성패가 이번 정벌에 달려 있으니 태자께서는 힘써 노력하십시오. 절반이 군주의 옷 색깔과 같은 옷을 입힌 것은 악의가 없다는 뜻이고, 병권을 준 것은 화를 멀리하게 한 것입니다. 군주가 태자를 이처럼 친애하여 화를 멀리하게 하였으니 무엇을 또 걱정할 필요 있겠습니까?” 하지만 호돌은 탄식하며 말했다.

“시時は 일의 징조이고 옷은 신분을 드러내며 장식은 충심을 나타내는 기치이다. 그러므로 이번 정벌을 증시했다면 시, 즉 봄이나 여름에 명령을 내렸을 것이고, 옷을 입힌다면 잡색이 아닌 순색을 입혔을 것이며, 충심을 믿었다면 법도에 맞는 패식을 채웠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군주는 한 해가 끝나가는 겨울에 명령을 내려 그 일을 막히게 하였고, 잡색의 옷을

雖欲勉之，狄可盡乎？”
梁餘子養曰：“帥師者，受命於廟，受賑於社，有常服矣。不獲而尫，命可知也。死而不孝，不如逃之。”
罕夷曰：“尫奇無常，金玦不復。雖復何為？君有心矣。”
先丹木曰：“是服也，狂夫阻之。曰‘盡敵而反’，敵可盡乎？雖盡敵，猶有內讒，不如違之。”
狐突欲行。羊舌大夫曰：“不可。違命不孝，棄事不忠。雖知其害，惡不可取。子其死之！”

大子將戰，狐突諫曰：“不可，昔辛伯諗周桓公云：‘內寵並后，外寵二政，嬖子配適，大都耦國，亂之本也。’
周公弗從，故及於難。今亂本成矣，立可必乎？孝而安民，子其圖之！與其危身以速罪也。”

입혀 태자를 멀리 한 것이며 옥환이 아닌 금결을 채웠으니 태자의 충심을 버린 것이다. 잡색 옷을 입혀 멀리하는 뜻을 보이고, 저울에 명을 내려 일을 막히게 하였다. 잡색은 냉정한 마음을, 저울은 속살을, 금은 차가움을, 결은 결별을 뜻하니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노력하고자 한들 적인을 전멸시킬 수 있겠는가? 양여자양 역시 “군대를 이끌고 종묘에서 제육을 받을 때에 법도에 맞는 의복이 있다. 그런데 이를 얻지 못하고 잡색 옷을 받았으니 군주의 명의 뜻을 알 만하다. 전쟁에 나가 죽어서 불효를 하느니 도망가는 것이 낫다.” 고 말했다. 한이는 “잡색 옷은 기이하고 법도에 맞지도 않는다. 금결은 돌아오지 말라는 뜻이니 비록 정벌에서 돌아온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군주는 다른 마음이 있다.” 고 말했다. 선주목은 “이런 잡색 옷은 미친 사람도 입지 않을 것인데, 이런 옷을 입히며 ‘적을 쫓아내고 돌아오라’ 고 명령하니 어찌 적을 진멸할 수 있겠는가? 비록 그렇다하더라도 안에서 참언이 있을 것이므로 도망가는 것만 못하다.” 라고 말했다. 호돌이 태자를 모시고 도망가려 하자 양설태부가 “불가하다. 군주의 명을 어겨 불효하고, 임무를 내버려 불충하는 것이니 비록 군주의 냉정한 뜻은 알겠지만 악을 취할 수는 없는 일이다. 태자에게선 차라리 전쟁에서 죽으십시오!” 라고 말했다.

태자가 전쟁을 하려하자, 호돌이 조언했다. “불가합니다. 옛날 재백辛伯이 주 환공에게 간하기를 ‘내총 즉 후궁의 지위가 왕후에 버금가고, 외총 즉 총애 받는 신하의 힘이 정경과 같으며, 서자의 지위가 적자에 버금가고, 대도의 규모가 국도와 비슷한 것은 모두 나라를 혼란하게 하는 근본’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주공이 그 말을 따르지 않아 화가 미쳤던 것입니다. 이제 진나라는 혼란의 원인이 발생했으니 태자가 즉위하는 것을 기필할 수 있겠습니까? 태자의 몸을 위태롭게 하여 죄를 보다 빨리 부르는 것보다 효

	도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	-------------------------------------

■晉侯使大子申生伐東山臯落氏: 동산고락씨東山臯落氏는 적적赤狄의 별종이다. 현재의 산서성 원곡현垣曲縣 동남쪽에 고락진臯落鎮이 있다. 이곳이 옛 고락씨의 영토이다. 산서성 석양현昔陽縣의 동남쪽 70리 떨어진 곳에도 고락진이 있는데, 『환우기』는 이곳이 동산고락씨의 땅이었다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주장 같다. 「진어1」에서는 이를 여희의 계략으로 보고, 그녀의 말을 매우 상세하게 적고 있다.

■里克諫曰: 이극은 진나라 대부 이계리季이다.

■ “大子奉冢祀·社稷之粢盛，以朝夕視君膳者也: 총冢은 대대의 뜻으로 총사는 종묘의 제사를 가리킨다. 선膳은 선식이다. 『예기·문왕세자』의 “문왕이 세자가 되어 매일 왕계에게 세 번 문안드렸다. 식사를 드실 때는 항상 곁을 지키며 음식이 차가운지 더운지 살펴보았으며, 식사를 마치면 음식(膳)에 대해 여쭙고 이를 음식을 담당하는 관리膳宰에게 전했다.” 이것은 태자가 조석으로 군주의 음식을 살펴보는 의례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故曰冢子. 君行則守，有守則從: 종從은 전통적으로 거성으로 읽었다. 이이덕 李貽德의 『가복주집술賈服注輯述』에서 「문왕세자」를 인용, “군주가 나라 밖으로 행차할 일이 있을 경우 서자가 공족 중 출정하지 않은 무리를 이끌고 궁실公宮을 지키고, 정실正室은 태묘를, 제부諸父는 귀궁貴宮과 귀실貴室을 지키며, 제자諸子와 제손諸孫들은 하궁下宮과 하실下室을 지키는 법이다.” 라고 설명한다. 이를 보면 수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왕세자」에서 언급한 것은 태자가 군주를 따라 나서지 않았을 때이다. 『좌전』의 요지는 군주가 출행할 때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대체로 집정과 경대부 중 군주를 따라 나서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극이 말한 바는 옛 제도이다.

■從曰撫軍，守曰監國，古之制也. 夫帥師，專行謀: 전專은 태자 임의로 결단을 내린다.

■誓軍旅: 군대를 호령하다.

■君與國政之所圖也: 국정은 나라의 정경正卿을 말한다.

■非大子之事也. 師在制命而已: 고대에 군사를 이끌 적에 장수가 명령을 내린다. 소위 “국내를 벗어나 군대를 이끌 때는 장군이 명령을 하고”, “장수가 지경 밖에서 군사를 이끌 때는 군주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것도 있다” 라는 말이 이를 말한다.

■稟命則不威: 장수가 일처리에 대해 모두 군주에게 문의하면 주장으로서의 위엄을 잃게 된다.

■專命則不孝: 독단으로 명령하는 권한을 행사하여 군주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또한 부자지간의 도리를 잃게 된다.

■故君之嗣適不可以帥師: 적適은 적嫡과 같다. 그러므로 사적嗣適이란 적사嫡嗣이다.

■君失其官: 즉 군주가 관리를 임용하는 옳은 방법을 버리고 태자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게 한다는 의미.

■帥師不威, 將焉用之? 且臣聞皋落氏將戰. 君其舍之!: 사지舍之란 태자를 전쟁터로 보내지 말라는 것이지, 동산을 정벌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것은 아니다.

■公曰: “寡人有子, 未知其誰立焉!” 不對而退: 「진어1」에 서술된 이극의 간언과 『좌전』과는 다른 점이 있다. 「진세가」는 『좌전』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

■見大子. 大子曰: “吾其廢乎?” 對曰: “告之以臨氏: (헌공이) 태자에게 곡옥에 거하면서 그 곳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던 일을 말한다.

■教之以軍旅: 앞서 말한 하군을 지휘하게 한 일을 말한다. 또 장수로서 동산고락씨皋落氏를 정벌하게 한 일이다.

■不共是懼: 금택문고본에는 “供”으로 쓴다. 공共을 공供의 뜻으로 읽는다면 즉 주어진 임무를 완성하지 못함의 뜻이 되고, 恭의 뜻을 읽는다면 임무에 임하여 엄숙하게 하지 못함의 뜻이다. 『국어·주어』의 위소의 주석에선 “밤낮으로 일에 매진하는 것을 공(夙夜敬事曰恭)”이라고 한다.

■何故廢乎? 且子懼不孝, 無懼弗得立. 脩己而不責人, 則免於難.”: 이 부분 역시 「진어1」의 서술은 『좌전』과 다르다. 「진세가」는 『좌전』을 따르고 있지만 다만 “이극은 병 때문에 태자를 따르는 것은 사양했다”고 적고 있다.

■大子帥師, 公衣之偏衣: 편衣는 「진어1」에서 “偏褻之衣”라고 쓴다. 褻은 옷의 등솔기를 말한다. 이 등솔기로부터 기준으로 좌우가 다른 색이기 때문에 편독지의라고 하고 생략하여 편의라고도 한다. 그 두 가지 색 중 하나는 군주의 옷 색깔과 같다. 그래서 이 다음 글에 선우先友가 “衣身之偏”이라고 하는데, 좌우가 다른 색이면서 대칭이 되지 않으므로 또 한이罕夷가 “尙奇無常”이라고 말한 것이다.

■佩之金玦: 玦은 고대에 몸에 지니던 물건으로 그 형태는 둥글고 속은 비어 있다. 다수 옥으로 만들었는데 금결이란 청동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狐突御戎, 先友為右: 호들의 자는 백행伯行으로서 호연의 부친이며 증이의 외조부가 된다. 선우는 선단목先丹木의 일족이다. 여기서는 태자가 진나라 헌공을 대신하여 상군上軍을 이끌고 있다. 공영달의 『소』는 “『좌전』의 여러 사례를 볼 때, 누가 어음이 되고, 누가 우가 되었다고 말할 경우 국군이 친히 장수가 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상세한 설명은 『좌

전 · 문공7년』의 주석을 참조하라.

■梁餘子養御罕夷, 先丹木為右: 梁餘子養은 양梁이 성이고, 여자餘子가 그의 자이며 양養이 이름이다. 백리맹명시百里孟明視처럼 성·자·이름을 모두 연이어 쓴 것이다. 진나라에는 양오梁五·양유미梁由靡·양병梁丙·양익이梁益耳 등이 모두 梁을 성으로 삼았다. 『광운』의 “梁” 자의 주석과 『통지·씨족략 서氏族略序』에선 梁餘를 복성으로 보고 있는데 오류로 생각된다. 왕인지의 『명자해고名字解詁』를 참고하라. 한이는 당연히 하군의 장수인데 본래는 태자가 하군을 이끌기로 했는데 이제 진후를 대신해서 태자가 상군을 이끌고 한이를 하군의 장수로 삼아 따라 나서게 한 것이다.

■羊舌大夫為尉: 양설대부는 『당서·재상세계표』에서 그의 이름을 돌솥이라 한다. 양설직羊舌職의 부친이며 숙향叔向의 조부이다. 위尉는 군위軍尉이다. 『좌전·양공19년』의 “공이 진焞 육사六師를 위해 포포蒲圃에서 연회를 베풀 때, 경이 입는 최고의 예복인 삼명의 복을 하사했는데 군위軍尉·사마司馬·사공司空·여위輿尉·후업候奄 등이 모두 대부의 예복인 일명의 복을 받았다.”는 기록을 보면 군위는 군의 장수 휘하 그리고 증관의 위이다. 『회남자·병략편』에 보면 “제군을 논의하자면, 동정에, 관리를 식별하고, 무기를 손질하고, 대오를 바르게 하고, 십백을 조직하고, 복과 깃발을 명확히 하는 것, 이것이 위관이 해야 할 일이다(夫論除謹, 動靜時, 吏卒辨, 兵甲治, 正行伍, 連什伯, 明鼓旗, 此尉之官也)⁶.”라고 설명되어 있다. 대체로 위尉의 직분은 위와 같다.

■先友曰: “衣身之偏: 태자가 입은 편의를 그 반절이 군주의 복색과 같으므로 이것은 군주의 옷의 반절을 태자에게 입힌 것이다.

■握兵之要: 금결을 몸에 지니고 상군을 지휘하며 하군이 뒤를 따랐다(즉 병권을 준 것을 말함).

■在此行也, 子其勉之! 偏躬無慝: 군주의 복색의 반절을 나눠 준 것은 악의가 없다는 의미.

■兵要遠災: 원遠은 전통적으로 거성으로 읽었다. 병권이 그에게 있으므로 화를 멀리 할 수 있다는 뜻.

■親以無災: 친은 악의가 없음으로 해석하고 무재는 윗글 원재와 같음.

■又何患焉?: 선우는 이번 정벌을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다. 혹 이미 마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부러라도 이렇게 위로한 말일 수도 있다.

■狐突歎曰: “時, 事之徵也: 여기서 시란 정벌에 나선 때를 말한다. 징徵은 징험證의 뜻. 즉 헌공이 겨울에 거병하였는데, 겨울은 쌀쌀한 기운이 초목을 말라 죽이는 때로서 다음에 나오는 “冬殺”이 이것이다. 헌공의 마음에 살의가

⁶ 확인

있음을 뜻한다.

■衣, 身之章也: 고대에 복색은 각 사람의 신분의 귀천을 나타낸다.

■佩, 衷之旗也: 몸에 지닌 패물로 덕을 나타낸다. 충衷은 중심과 같으므로 패란 중심을 드러내는 기치/표지라고 할 수 있다.

■故敬其事, 則命以始: “命以始”란 당연히 겨울이 아닌 봄이나 여름에 상을 내려야 함이다.

■服其身, 則衣之純: 반드시 편의처럼 잡색이 아닌 순색으로 옷을 입혀야 한다. 고대의 전투복(戎服)은 더더욱 한 가지 색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균복均服이라고도 불렀다.

■用其衷, 則佩之度: 어떤 사람의 중심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예법에 맞는 물건을 사용해야 한다. 옛 사람들은 금결이 아닌 패옥으로 그 상도를 삼았다.

■今命以時卒, 闕其事也: 12월은 사계절의 마지막 달이다. 그러므로 계절의 끄트머리에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비闕는 문을 닫음閉門이다. 인신되어 널리 폐閉의 뜻으로 사용한다. (단옥재의 『설문해자주』: 저자) 폐기사란 그러므로 시킨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만든 것을 의미한다.

■衣之尫服, 遠其躬也: 방복尫服은 잡색의 옷으로서 편의를 가리킨다. 遠其躬과 선우가 말한 악의가 없다란 의미로 쓰인 親은 서로 날카롭게 대립한다.

■佩以金玦, 棄其衷也: 금결을 패물로 준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즉 현공이 태자의 중심을 버렸다는 의미.

■服以遠之, 時以闕之; 尫, 涼; 冬, 殺: 양涼은 『설문』에선 “량涼”으로 인용하는데, 역시 잡색이란 뜻이다. 이 글자로 방의 뜻을 풀이한 것이다. 겨울은 쓸쓸한 기운이 초목을 말라 죽인다. 살殺자로 동冬을 해석한 것이다.

■金, 寒; 玦, 離: 고대인들은 옥의 성질을 따듯함으로, 쇠의 성질은 차가움으로 여겼기 때문에 추움寒으로 금을 해석했다. 또 옛 사람들은 결玦을 이별의 뜻으로 여겼는데, 『순자·대략편大略篇』의 “결玦로 사람의 인연을 끊고, 환環으로 끊어진 인연을 되돌린다”고 한 것이나 『대대례기·왕도기王度記』의 소위 “신하에게 결을 하사하면 떠나가는 법이다”, 『백호통·간쟁편諫諍篇』의 “신하가 교외에서 군주의 명을 기다리다가, 환을 내리면 돌아오고, 결을 내리면 떠나간다.”라는 말 등이 모두 이를 뒷받침한다.

■胡可恃也? 雖欲勉之, 狄可盡乎?: “비록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는 앞서 선우의 “태자에게서는 최선을 다하시면 된다”라는 말과 대립한다. “狄可盡乎”는 현공이 일찍이 태자에게 “적을 전멸시키고 돌아오라”고 말한 것이다.

■梁餘子養曰: “帥師者, 受命於廟: 「진어」의 위소의 주석 “군사의 출정에 앞서 종묘에 보고하고 戎命을 받는다.”

■受服於社: 신服은 『설문』에선 “신복”으로 쓰고 “제사에 쓰일 고기이다.

대합(蜃)의 껍데기에 가득 담아 올리기 때문에 신복이라 한다.” 고 설명한다.

『좌전 · 성공13년』의 “성공과 제후들이 왕을 조회하고 유강공과 성숙공을 따라서 진후와 회합하여 진나라를 정벌했다. 성자가 사직에서 제사고기脰를 받았는데 이는 불경한 행동이었다.” 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출병하기 전 제사지낼 고기를 받은 일을 말하고 있다. 고래에는 출병 때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를 “의宜”라 한다. 제사를 마치면 제사고기를 여러 사람에게 나눠 주는데 이를 수신受脰이라 한다.

■有常服矣. 不獲而尫: 불획不獲은 상복常服을 얻지 못했음을 말함. 위변복韋弁服이 바로 음복 즉 전투복인데 『좌전 · 성공16년』의 “붉은 가죽으로 발등을 덮은 이가 있었는데, 군자다웠다(有韃韋之附注, 君子也).” 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열은 붉은색의 모위茅韋로 고깔변을 만든 복장이다. 방尫은 편 의이다.

■命可知也: 명이란 헌공의 명령이다. 즉 헌공의 명령에 선의가 없음을 말함.

■死而不孝, 不如逃之.” 罕夷曰: “尫奇無常: 「진어」은 “태자 신생을 시켜 동산을 정벌토록 하면서 옷은 편의를 내리고, 금결을 신물로 주었다. 복인인 찬贊이 이를 듣고서 ‘태자가 위험하다! 군주가 기이한 것들을 하사하였는데, 기이함은 괴이함을 낳고, 괴이함은 무질서無常를 낳으니 무상하면 즉위할 수 없다.’ 고 말했다.” 고 적고 있다. 『주례 · 혼인關人』의 “이상한 복장을 하거나 괴이한 백성은 궁궐에 들이지 않는다(奇服怪民不入宮)” 는 것에 대해 정현은 “기복이란 법도에 맞지 않는 옷이다. 『춘추전』에서 ‘잡색 옷(방)은 기이하고 법도에 맞지 않는다’ 고 하였다” 고 설명한다. 이것은 정상인 아닌非常 것으로 무상을 설명한 것이다.

■金珰不復: 결은 이별을 뜻하므로 돌아오지 못함이다.

■雖復何為? 君有心矣.” : 두예는 “태자를 해치려는 마음이 있었다” 고 설명한다.

■先丹木曰: “是服也, 狂夫阻之: 「진어」은 “또한 이런 옷(즉 편의)은 미친 사람도 싫어할 옷이다.” 라고 말한다. 『이아 · 석고』는 “조阻는 어렵다難의 뜻” 이라고 풀이한다. 즉 미친 사람 역시 입기 어려워한다는 의미이다. 장병린은 복건과 위소가 (광부를) 『주례 · 하관』에 나오는 방상씨方相氏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방상씨는 검은 윗도리玄衣와 주황색 아랫도리朱裳를 입지 편의를 입지는 않으므로 그의 주장은 옳지 않다. 조지阻之는 옷을 입다(著之)란 말과 같다. 위소는 저阻를 저주함詛의 뜻으로 보았지만 역시 믿을 수 없다. 우창의 『향초교서』는 “是服也狂”을 한 구로 끊고, “夫阻之曰”을 이어 읽고서 진 헌공이 태자에게 편의를 입히고서 그를 저주했다고 해석한다. 즉 “적을 전멸시키고 돌아오라”는 말이 저주의 말이라고 하는데 이는 더 지나친 억설이다.

- 曰 ‘盡敵而反’ : 진 헌공이 신생에게 내린 명령이다.
- 敵可盡乎? 雖盡敵, 猶有內讒, 不如違之.” : 위違는 떠남/도망감의 뜻. 양여자 양가 “도망가는 것이 낫다(不如逃之)” 라고 말한 것과 상응한다.
- 狐突欲行. 羊舌大夫曰: “不可. 違命不孝, 棄事不忠. 雖知其寒: 여기의 한寒자와 호돌이 말한 “金寒”의 한寒자는 상응한다. 한량寒涼은 고악함苦惡과 같다.
- 惡不可取: 악은 불효와 불충을 가리킨다.
- 子其死之!” : 「진어1」 에도 나오는 문구다.
- 大子將戰, 狐突諫曰: “不可, 昔辛伯諫周桓公云: 심諫의 음은 심審이다. 간곡하게 간언함이다.
- ‘內寵並后, 外寵二政: 正政은 곧 국정國政으로서 정경正卿의 의미.
- 嬖子配適: 해제奚齊 · 락자卓子和 태자 신생이 서로 필적함을 말한다.
- 大都耦國: 『좌전 · 환공18년』 의 주석에 신백辛伯의 말이 상세하다. 호돌은 신백의 간언을 인용하여 당시 진나라의 상황에 비유했다. 여희가 총애를 받고, 양오와 동관폐오가 정경으로 등용된 일을 가리킨다. 어떤 이는 대도는 곡옥을 가리킨다고 하지만 곡옥에 거주하는 이는 신생 본인으로서 진나라의 해가 되지는 않는다. 옛 사람들이 옛 일로서 현재의 일을 비유했 때는 그 대의만을 취하는 것이지 세세하게 부합하는 것을 따지지 않는다.
- 亂之本也.’ 周公弗從, 故及於難: 『좌전 · 환공18년』 에 자세하다.
- 今亂本成矣, 立可必乎? 孝而安民, 子其圖之!: 호돌은 여전히 태자가 그냥 떠날 것을 권하고 있다. 두예는 “몸을 보존하는 것이 효도이고,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백성을 편안하게 함(奉身爲孝, 不戰爲安民)” 이라고 주석한다.
- 與其危身以速罪也: 전쟁을 하면 몸을 위태롭게 하여 죄를 빨리 부르게 된다. 이 문장은 도치되어 있다.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與其危身以速罪也, 不如孝而安民, 子其圖之.” 이 용법은 환공원년 사위가 “如其及也” 라고 말한 것과 같다. 『진어1』 에서는 “직상에 이르렀을 때 적인이 상대하러 나왔다. 신생이 전투를 하려 하자 호돌이 제지했다. ‘전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듣건대, 군주가 간신을 좋아하면 대부가 위태롭고, 안으로 첩을 총애하면 태자가 위태롭고 사직이 위태롭다 하였습니다. 만약 부친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멀리서 죽고 마는 것과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더라도 백성에게 은혜를 주고 사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도모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태자가 적인의 땅에서 위협에 처해 있음을 틈타 안에서는 참언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신생은 “안 됩니다. 부친이 나에게 임무를 주신 것은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생각건대 내 마음을 헤아려 보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 까닭에 내게 기이한 옷을 하사하시고, 나에게

병권으로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말씀이 좋았다는 것은 그 중에 분명히 쓴 고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안에서 나에 대한 참언이 일러나 임금께서 그 때문에 나쁜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비록 전갈처럼 독한 참언이라 해도 어찌 내가 그것을 피하고자 해서야 되겠습니까? 싸우느니만 못합니다. 싸우지 않고 돌아간다면 나의 죄만 더욱 커지겠지만 싸우다가 죽는다면 그나마 아름다운 이름이라도 남길 것입니다.’ 태자는 과연 직상에서 적인을 크게 쳐부수고 귀국하였다. 참언은 더욱 크게 일어났고 호돌은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군자는 이렇게 평했다. ‘호돌의 심려는 매우 훌륭하였다.’ ”

민공좌전_02_08	成風聞成季之繇，乃事之，而屬僖公焉，故成季立之。	성풍成風이 성계成季가 태어날 때의 점사를 듣고서 그와 친밀하게 지내며 희공을 그에게 부탁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계는 희공을 세우려고 한 것이다.
------------	--------------------------	--

▣成風聞成季之繇: 성풍成風은 장공의 첩첩, 희공의 모친이다. 요繇의 음은 주宙이다. 괘卦兆의 점사이다. 앞의 내용을 참조하라.

▣乃事之: 『좌전 · 문공18년』의 “문공에게는 2명의 비가 있었는데 경영이 선공을 낳고서 애지중지하며, 사사롭게 양중과 결탁하였다(而私事襄仲)”는 기사에서의 “事” 자의 쓰임과 같다. 즉 결탁하여 도움이 되자라는 뜻이다.

▣而屬僖公焉，故成季立之: 주석 없음.

민공좌전_02_09	僖之元年，齊桓公遷邢于夷儀。二年，封衛于楚丘。邢遷如歸，衛國忘亡。	희공 원년, 제 환공은 형나라를 이의夷儀(산동성 료성현聊城縣의 서쪽 12리)로 옮겨 다시 세우고, 2년에는 위나라를 초구楚丘(하남성 활현滑縣의 동쪽)에 새롭게 나라를 세우도록 하였다. 형나라는 마치 본국으로 돌아온 듯이, 위나라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했었다는 사실조차 잊을 정도로 기뻐했다.
------------	-----------------------------------	---

▣僖之元年，齊桓公遷邢于夷儀: 이의夷儀는 마종연馬宗璉의 『보주』와 심흥한의 『지명보주』에 근거하면 현재의 산동성 료성현聊城縣의 서쪽 12리 떨어진 곳이다. 혹은 하북성 형태시邢台市 서쪽이라고 하지만 옳지 않다.

▣二年，封衛于楚丘: 초구楚丘는 위나라 땅이다. 현재의 하남성 활현滑縣의 동쪽이다. 제소남齊召南의 『좌전주소고증』에선 “『좌전』의 글에는 후대에 추술한 것이 있고, 미래의 일을 예지한 것이 있는데 이 문장은 예지한 내용이다.”

『여씨춘추 · 간선편簡選篇』에서 “제 환공은 좋은 전차 3백승과 잘 훈련된 병사 만 명을 병수로 삼아 증원을 누비니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다. 남쪽으로는 석량石梁에, 서쪽으로는 풍곽鄆郭에, 북쪽으로는 영지슈支에 이르렀다. 중산中山이 형나라를 멸하고, 적인이 위나라를 멸했다. 이에 환공은 형나라를 이의에 다시 세워줬고, 위나라는 초구에 다시 세워줬다.” 고 말한다.

■刑遷如歸, 衛國忘亡: 유지기의 『사통 · 모의편模擬篇』은 “모든 사람들이 안도하고, 옛 물건들을 빼뜨리지 않았다(言上下安堵, 不失舊物也).” 라고 설명한다.

<p>민공좌전_02_10</p>	<p>衛文公大布之衣 · 大帛之冠, 務材 · 訓農, 通商 · 惠工, 敬教 · 勸學, 授方 · 任能. 元年, 革車三十乘; 季年, 乃三百乘.</p>	<p>위衛 문공文公은 거친 베옷과 거친 명주로 만든 관을 쓰고, 재화를 증식하고, 농사를 가르치며, 통상을 장려하고, 공인들을 우대하였다. 또 교육과 학문을 권장하고, 관리들이 지켜야 할 법을 제정하고 능력 있는 이를 뽑아 썼다. 희공 원년, 제 환공이 보내 주었던 30승의 혁거가 희공 말년에는 300승으로 증가하게 되었다.</p>
-------------------	---	--

■衛文公大布之衣 · 大帛之冠: 위 문공은 대공의 뒤를 이었다. 앞의 주석을 참조. 대백大帛은 『주례 · 잡기상』의 정현의 주석에서 인용할 때는 “대백大白”으로 쓰고 있다. 또 “대백관은 상고시대의 포관이다(大白冠, 大古之布冠也).” 라고 설명한다. 대포의와 대백관은 검소함을 나타낸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서효식徐孝寔의 『춘추좌씨전정의집술春秋左氏傳鄭義輯述』 (『문사』 제8집)에 있다.

■務材 · 訓農: 공영달의 『소』는 “무재務材는 재물을 증식하는 일에 힘쓰이고, 훈농訓農은 백성들을 농업에 힘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송본을 따름: 저자)이다.” 라고 설명한다.

■通商 · 惠工: 공영달의 『소』는 “통상通商은 물건을 사고파는 유통 경로를 원활하게 하여 서로 이익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혜공惠工이란 장인들에게 혜택을 주어 재화를 잘 만들도록 격려함이다.” 라고 설명한다.

■敬教 · 勸學: 공영달의 『소』는 “경교는 백성들이 다섯 가지 가르침을 공경하도록 하는 것이고, 권학은 백성들이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권면함이다.” 라고 설명한다.

■授方 · 任能: 이 두 가지 항목은 관리를 가리켜 한 말이다. 방方은 성공18년과 양공9년의 『좌전』의 “관리가 법을 바꾸지 않고(官不易方)”, 『좌전 · 소공29년』의 “관리가 법을 잘 지키며(官修其方)”에서의 “方”과 같은 뜻이다.

수방授方이란 백관이 지켜야 할 상법常法을 전수함이다. 임능任能이란 재능이 있는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다. 不授以方이란 곧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없다는 것과 같고, 不任其能이란 다스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유월의 『평의』에 자세하다.

■元年, 革車三十乘; 季年: 계년은 말년이다. 두예는 희공25년에 해당한다고 여겼다.

■乃三百乘: “乃三百乘”은 궁극적으로 3백승에 달했다는 의미이다. 30은 제 환공이 보낸 것이고 3백승은 그 후 나라를 다스리면서 획득한 것을 말한다.